‘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힘 모은다

9일까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주관 200여개사 선발…최대 1억5천만원 지원

삼성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200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기 위해 힘을 모은다. 스마트공장을 처음 구축하는 기업에는 6천만원을, 고도화에 나선 기업에는 1억5천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와 생산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은 오는 9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삼성과 함께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1차 지원사업을 통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1천996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스마트공장 자발적 확산 체계를 마련해왔다.

해당 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사업 시작 첫해였던 2018년 86.2%에서 4년 연속 증가, 2021년 기준 91.1%까지 치솟았다. 특히 제조현장 전문가의 혁신활동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86.6%에 달할 정도였다. 또한 삼성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미도입 기업 대비 영업이익 37.6%포인트(p), 부가가치 23.4%p, 매출액 11.4%p, 종업원수 3.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참여 기업의 만족도 뿐만 아닌 경영 성과까지 모두 잡은 대표적인 모범 지원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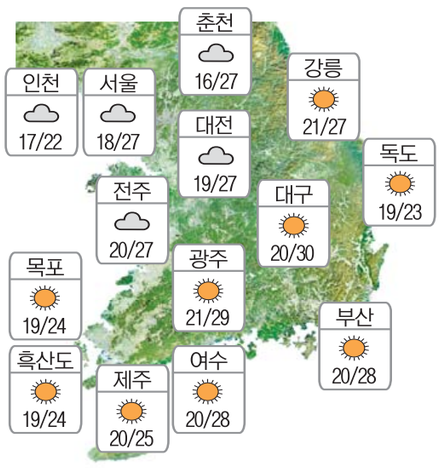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2차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이 3년간 매년 2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00여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한다.

특히 삼성에서는 이번 2차 지원사업부터 본격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AI·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공장 구축과 안전한 일터 구축, 에너지 절감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경영(ESG)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지원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국산 양파 ‘맵시황’ 수확 1일 무안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국산 양파 ‘맵시황’ 품종을 수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오늘의 날씨

해뜸 05:19 해짐 19:42
달뜸 17:48 달짐 03:38



광주	맑음	21/29
목포	맑음	19/24
여수	맑음	20/28
나주	맑음	19/29
완도	맑음	20/27
구례	맑음	20/30
강진	맑음	20/30
해남	맑음	19/28
장성	맑음	19/28
보성	맑음	19/28
순천	맑음	20/32
영광	맑음	19/28
진도	맑음	18/26
흑산도	맑음	19/24
고흥	맑음	19/29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30 우산 챙기세요 / 빨래 20 잘 마르지 않아요 / 세차 20 다음으로 미루세요 / 운동 50 실내운동 즐겨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0.5-1.5	0.5-1.5
	먼바다(북)	1.0-2.0	1.0-2.0
	먼바다(남)	2.0-4.0	1.5-3.5
남해서부	앞바다	1.0-2.0	1.0-2.0
	먼바다(동)	1.5-3.0	1.5-3.0
	먼바다(서)	1.5-2.5	1.5-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0:35	06:05
	12:35	18:07
여수	07:34	01:36
	20:15	13:32
녹동	08:10	02:38
	20:55	14:27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6월 3일(토)	(18/28)	(18/29)	(17/27)	(17/29)	(18/24)
4일(일)	(17/28)	(18/28)	(20/29)	(17/30)	(19/26)
5일(월)	(17/28)	(17/27)	(19/26)	(18/29)	(19/24)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그랜드 오픈

2만5천여세대 광주 동구 신주거타운 중심 미래가치 기대
초역세권 입지, 파격적 계약조건으로 청약통장 몰릴 듯

모아엘가가 광주시 동구 계림동 12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의 2일 그랜드 오픈 소식을 알리며 본격적 분양에 나선다. 광주 동구 신주거타운에 위치한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총 815세대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74·84㎡를 일반 분양한다.

도보 3분 교대역(예정) 초역세권, 단지 바로 앞 계림초, 2만 5천여 세대의 동구 신주거타운의 최중심 등 이미 검증된 입지로 오랫동안 오픈을 기다려왔던 단지인 만큼 분양조건에 대한 궁금증도 높았다. 〈조감도〉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계약금(1차) 1천만원 정액제, 계약금 5% 및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과 계약자 전원 파격 혜택까지 근래 광주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의 계약조건을 내걸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얼어붙었던 청약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약 인증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일러, 노트북, 냉장고, 인덕션, 공기청정기, 가습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다채로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청약조건도 규제가 해제돼 자유롭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수와 무관하게 1순위 청약 가능하고,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이에 청약 통장이 있는 실거주자와 투자자들 모두 무조건 청약을 넣어야 하는 단지로 꼽히고 있다.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향후 더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입지이기 때문이다. 동구 신주거타운은 2만 5천여 세대가 계획돼 있는데 이는 수완지구 2만3천392세대, 상무지구 1만4천141세대 보다 훨씬 규모가 큰 메머드급이다.

수완지구, 상무지구 등 택지지구도 초반에는 인프라가 형성이 되지 않아 분양률이 낮았으며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도 많았으나 동구 신주거타운은 이미 완성된 인프라를 자랑한다.

특히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예정)이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 단지이며, 바로 앞 도보 2분 거리에 계림초, 광주고가 있어 동구 신주거타운 내에서도 실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이다.

또 광주의 명문 대학인 교대, 전대, 조대와 더불어 충장중, 동신여중·고, 동신중·고, 산수도서관, 중흥도서관, 동명동 학원가까지 몰려있어 이사 가지 않고 초·중·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실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전세, 월세 수요도 풍부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2일부터 3일간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일러(3명), 로봇청소기(3명), 써큘레이터(20명) 등 경품, 선착순 라면 증정, 유아 동반 고객 장난감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임채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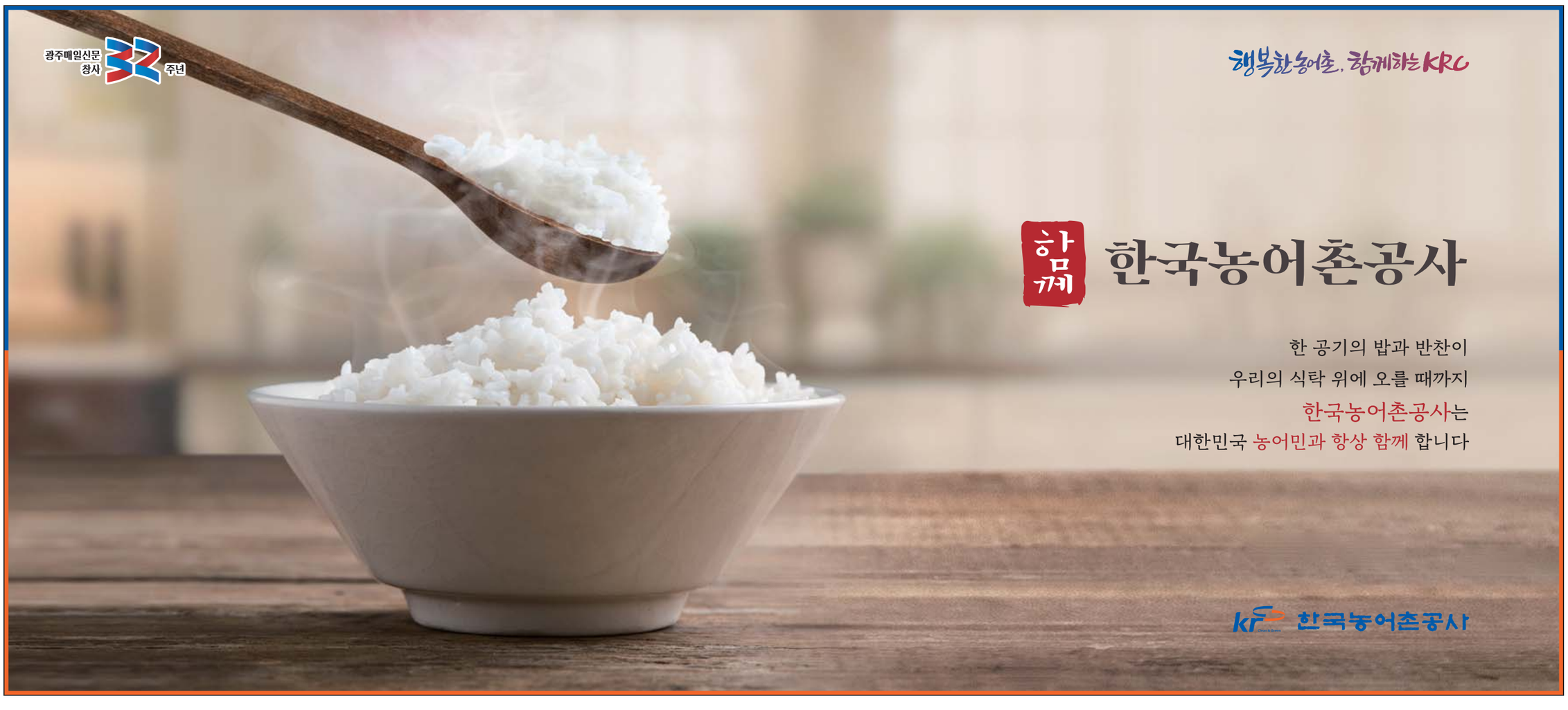
광주신보, 하나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광주신보)은 최근 ‘2023년 하나은행 특별출연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광주신보는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출연받아 6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업체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보증료율은 연간 0.8-1.0%,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협약보증을 지원받고 싶은 소기업·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상담을 한 후, 예약일 해당지점을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

광주신보 김귀남 이사장은 “이번 협약 보증으로 지역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광주신보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